

탈물질주의 가치와 이동전화 이용 행동 및 태도에서의 세대차*

나 은 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이동전화 관련 행동과 태도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고, 이 차이를 탈물질주의 가치에서의 세대차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서울 시내 20대와 40대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 371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젊은 세대가 더 자기표현적인 방식으로 주로 동성 친구들과 문자메시지 및 음성통화를 이용한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으며, 기성세대는 주로 도구적인 방식으로 가족 및 동성친구들과의 음성통화에 의존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의 높은 변화수용성과 규칙회피 성향도 이동전화의 자기표현적 사용 및 탈물질주의 가치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주제어 : 탈물질주의 가치, 세대차, 이동전화, 자기표현적 이용, 도구적 이용

이제 이동전화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며, 유선전화를 필적할 만한 필수적인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일반화된 보급률만큼이나 이동전화 사용 예절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고 있고 음성통화 이외의 사용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동전화의 보편화된 이용 증가와 기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다양한 이용 영역에서 큰 세대차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는 통신수단이라 할지라도

* 이 논문은 2001년도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한국언론학회 공동연구에서 본 저자가 담당했던 부분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나 은 영, ena@sogang.ac.kr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진한(2001)은 한국인이 이동전화 이용에서 얻는 충족 요인으로 오락, 사교, 거래, 즉시접속, 프라이버시와 같은 5개 요인을 추출 하였으며, 이 중 프라이버시와 즉시접속은 나온 영(2001a)이 밝힌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속성 중 각각 개인중심성과 즉시성에 해당 한다.

이동전화 이전에 유선전화가 제공하던 충족은 ① 본질적 또는 사교지향적 이용과 ② 도구적 또는 과업지향적 이용으로 나뉘기도 하고 (Keller, 1977; Noble, 1987), ① 관계적 이용과 ② 기능적 이용으로 나뉘기도 하며 (Classe & Rowe, 1987), ① 사교적 이용과 ② 실용적 이용으로 나뉘기도 하고 (Singer, 1981), ① 사회감성적 이용과 ② 업무적 이용으로 나뉘기도 한다 (Rogers, 1986). 보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호출기의 충족 요인도 유선전화와 유사하게 사교, 정보추구, 오락, 패션과 지위 추구로 나타났으며 (Leung & Wei, 1998), 이동전화 충족 요인으로는 사교성, 이동성, 즉각성,

도구성이 추출되었다 (Leung & Wei, 2000). 배진한 (2001)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구분들은 상당부분 이 중첩되어 있다. 즉, 전화의 경우 근본적으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대조적 기능이며, 호출기와 이동전화의 경우 여기에 이동성과 즉각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인희(2001)는 전화 이용 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동전화를 이용하는지를 요인분석한 이인희(2001)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이용 동기가 발견되었다: ① 사회성, ② 즉시성, ③ 이동성, ④ 체면/동조, ⑤ 도구성, ⑥ 정보습득, ⑦ 흥미와 휴식, ⑧ 과시, ⑨ 패션과 사회적 지위, ⑩ 시간관리, ⑪ 안심.

이용동기와 이용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회귀 분석에서 이인희(2001)는 사회성 동기가 높은 사람이 이용 횟수가 많고 친구나 선후배와 주로 통화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즉시성과 이동

표 1. 유선전화 이용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전화이용의 동기유형 구분			
		업무 또는 내용 지향성		관계 또는 감정 지향성	
Keller	1977	instrumental	-	intrinsic	-
Singer	1981	practical	-	social	-
Williams, Dordick, & Jesuale	1985	practical	-	social	entertainment
Rogers	1986	task	-	socioemotional	-
Classe & Rowe	1987	functional	-	relational	-
Noble	1987	task-oriented	-	social	-
Ball-Rokeach & Reardon	1988	exchange-oriented	-	relation-oriented	-
Fisher	1988	practical	-	social	-
Dimmick & Sikand	1994	instrumentality	-	sociability	reassurance
O'Keefe & Sulanowski	1995	acquisition	time management	sociability	entertainment

출처: 이인희, 2001, p. 268.

성 동기가 높은 사람은 가족이나 친지와 많은 통화를 하고 차량이나 도로로 이동 중에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체면과 동조 동기가 높은 사람이 친구나 선후배와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인희, 2001, p. 282의 표 참조). 그러나 체면과 동조, 과시, 패션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동기가 대학생들에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이동전화 이용행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정도가 약함을 지적하였다.

윗사람과의 통화에서 이동전화의 얼마나 적합한 매체인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관한 분석도 흥미롭다(배진한, 2001). 웃어른에게는 알림 상황이나 상담·부탁 상황에서 모두 이동전화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상담이나 부탁 상황일 때 적합도 인식의 차이가 더 컸다(노규형, 1987; 김현주 2000 참조). 친구나 동료에게는 알림 상황일 때에는 이동전화의 면대면 접촉보다 더 적합성이 크게 나타났다(배진한, 2001, p. 180의 표 참조). 상황에 따른 이동전화 적합성 인식의 연령집단별 차이 분석에서는 웃어른에게 상담이나 부탁을 할 때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대로 적합하다고 보는 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상황에서는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았다(배진한, 2001, p. 181의 표 참조).

이동전화 이용 양식에서의 세대차는 자기표현적·탈물질주의적이며 변화수용적인 신세대와 아직 물질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변화저항적·도구적 가치지향의 기성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반영한다(나은영, 2001b 참조).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사회가 변화해 가는 방향은 전통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산업화된 물질주의 사회로, 그리고 탈물질주의적

인 자기표현적 사회 쪽으로 변화해 간다. 한국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넘어가는 경계선 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경제성장보다 발언권, 환경개선, 언론자유, 아이디어, 인간적인 사회의 추구 성향 등이 높으면 탈물질주의 성향이 높다고 진단된다 (Inglehart, 1997).

한국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변화수용성의 세대차도 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Na & Duckitt, 2002), 이로 인해 소비 양식, 특히 혁신적인 뉴미디어 도입 초기의 소비 행동과 그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탈물질주의 성향은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 그리고 20대와 40대를 구분해 주는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문항으로 한국의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현황을 조사하되,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한국에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세대차'에 더욱 주목하여 (Inglehart, 1997 참조),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이동전화 관련 행동과 태도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꼭 필요한 일이다(Suler, 1999). 바로 그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양식 이해' 중의 하나가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이용 양식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서로 달리 이용한다는 것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괴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이동전화 이

용 양식이 다른지, 그리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로 다른 세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더욱 부드럽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세대차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이동전화 이용자의 이용 행동은 세대 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태도는 세대 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세대차는 자기표현적·탈물질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20대와 40대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 371명을 임의표집하였다. 조사원은 서강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조사방법론을 수강하는 신문방송학과 2.4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조사 참여 대가로 약간의 보너스 학점을 받았다. 표본의 특성은 20대와 40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가능한 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표집된 표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대가 21.78세 (20명), 40대가 48.73세 (169명)였으며, 남녀별로는 20대가 남자 106명과 여자 96명, 40대가 남자 69명과 여자 100명이었다. 조사 시기는 2001년 5월이었다.

연구 결과

이동전화 이용자의 세대차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의 전반적인 이용 현황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20대와 40대의 평균치 간 차이검증을 해 본 결과, 이동전화 이용자 중 40대가 20대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동전화를 사용해 오고 있지만 이동전화 교체 시기는 20대가 더 최근이라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40대가 이동전화를 더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20대가 훨씬 더 단기간만에 이동전화를 교체하여 신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평균 이용요금, 이용시간, 통화인원수는 20대와 40대가 거의 비슷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회 통화를 길게 하는 대상의 순위와 통화지속시간

표 3은 1회통화에서 길게 통화하는 대상의 순

표 2. 이동전화 이용자의 이용 현황

문항 내용	연령대	평균치	N	t
사용기간 (~개월)	20	27.13	104	-5.59 ***
	40	43.01	84	
교체시기 (~개월 전)	20	11.19	96	-3.50 **
	40	16.40	78	
월평균 이용요금(원)	20	39892.16	102	n.s.
	40	38648.81	84	
월평균 이용시간(분)	20	266.41	89	n.s.
	40	317.84	67	
1주평균 통화인원(명)	20	12.95	100	n.s.
	40	14.31	8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1회통화 오랜시간 하는 순위

문항 내용	연령대	평균순위	N	t
가족	20	2.58	92	8.11***
	40	1.65	79	
동성친구	20	1.77	103	-2.81**
	40	2.21	61	
이성친구	20	2.02	97	n.s.
	40	1.50	8	
직장동료	20	2.67	9	n.s.
	40	2.28	43	

주. * $p < .05$, ** $p < .01$, *** $p < .001$.

위를 보여 주고 있으며, 표 4는 가장 긴 1회통화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이동전화 사용자 중에 1회 통화시간이 긴 대상으로 가족을 꼽는 순위는 20대보다 40대가 더 앞섰다. 20대는 가족보다 동성친구와 1회 통화를 길게 하는 순위가 더 앞섰다. 40대는 이성친구와 1회 통화시간이 긴 사례가 많지 않으나(N = 8), 있는 경우는 가족보다도 순위가 앞섰다. 20대는 직장동료와 1회 통화시간이 긴 사례가 많지 않고(N = 9),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순위가 더 떨어졌다.

표 4. 가장 긴 1회통화 지속시간

문항 내용	연령대	평균지속 시간(분)	N	t
가족	20	10.08	89	-2.38*
	40	16.01	70	
동성친구	20	26.65	100	3.21**
	40	14.48	54	
이성친구	20	57.60	96	1.69 ⁺
	40	25.78	9	
직장동료	20	11.13	8	n.s.
	40	12.89	37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이동전화 사용자 중에 가족과 1회통화에서 가장 길게 통화하는 시간은 40대가 20대보다 더 길었다(표 4 참조). 20대는 가족보다 동성친구와 1회 통화시간이 더 길었다. 40대는 이성친구와 1회 통화시간이 긴 사례가 많지 않으나(N = 9), 있는 경우는 가족보다도 더 1회 통화시간이 길었다. 20대는 직장동료와 1회 통화시간이 긴 사례가 많지 않지만(N = 8), 있는 경우는 40대와 유사하였다.

자주 통화하는 대상의 순위와 1주 통화 빈도

표 5는 자주 통화하는 대상의 평균 순위를 나타낸다. 이동전화 사용자 중에 20대는 자주 통화하는 순위가 이성친구, 동성친구, 직장동료(사례수 적음), 가족 순위이나, 40대는 가족, 이성친구(사례수 적음), 직장동료, 동성친구의 순이다. 특히 20대는 동성친구와 40대는 가족과 가장 자주 통화한다는 점에서 크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표 6에 나와 있는 1주 평균 통화 빈도의 결과를 보면, 이동전화 사용자 중에 20대는 이성친구, 직장동료(사례수 적음), 동성친구, 가족 순으로 1주 평균 통화 횟수가 많으며, 40대는 동성친구와

표 5. 자주 통화하는 대상의 순위

문항 내용	연령대	평균순위	N	t
가족	20	2.69	99	4.87***
	40	1.64	84	
동성친구	20	1.84	102	-6.31***
	40	3.82	84	
이성친구	20	1.62	92	n.s.
	40	1.89	9	
직장동료	20	2.25	4	n.s.
	40	2.15	4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6. 1주 평균 통화 빈도

문항 내용	연령대	통화횟수	N	t
가족	20	8.74	100	n.s.
	40	12.37	81	
동성친구	20	11.44	102	-3.92***
	40	28.42	82	
이성친구	20	13.96	92	1.71 ⁺
	40	6.30	10	
직장동료	20	11.75	4	n.s.
	40	9.76	38	

주.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7. 각 영역의 이동전화 사용 정도(5점척도 점수)

문항 내용	연령대	평균치	N	t
음성통화	20	3.21	104	n.s.
	40	3.00	84	
문자메시지	20	4.07	104	17.62***
	40	1.63	83	
무선인터넷	20	1.47	104	4.23***
	40	1.10	83	
교통, 날씨, 운세	20	1.24	103	n.s.
	40	1.17	83	

주. *p < .05, **p < .01, ***p < .001.

의 통화 횟수가 월등히 많고 그 다음으로 가족, 직장동료, 이성친구(사례수 적음) 순이다.

요약하면, 40대는 전반적으로 동성친구와는 자주 짧게, 이성친구와는 (사례수는 적지만) 간간이 길게 통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대는 동성친구보다 이성친구와 조금 더 자주, 훨씬 더 길게 통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과의 통화는 통화 횟수와 지속시간에서 40대가 20대보다 훨씬 더 높았지만, 40대도 그 횟수에서는 동성친구를 앞지르지 못했고, 지속시간에서는 이성친구를 앞지르지 못했다.

이동전화 사용 영역의 세대차

표 7은 20대와 40대가 각각의 이동전화 사용 영역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5점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평균치이다. 이동전화 사용자 중에 20대는 음성통화보다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쓰고, 40대는 음성통화를 문자메시지보다 월등히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음성통화량에는 세대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사용 정도에서는 큰 세대차를 보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20대의 경우 음성통화(M = 3.21)보다도 오히려 문자메시지(M = 4.07)를 더 많이 사용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신세대에게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가 음성통화에 버금가는 ‘예외적인’ 전달방식이 아니라 음성통화보다도 더 ‘전형적인’ 전달방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인터넷 사용 정도도 문자메시지에서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20대가 40대가 유의하게 무선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이유는 20대의 경우 (1) 편리하니까 (2) 내가 급할 때 연락하기 쉬우니까, (3) 타인이 찾기 쉽게, (4) 안심이 되니까, (5) 좋아 보이니까의 순이었으며 40대의 경우는 (1) 내가 급할 때 연락하기 쉬우니까, (2) 편리하니까, (3) 타인이 찾기 쉽게, (4) 좋아 보이니까, (5) 안심이 되니까의 순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왜 이동전화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에는 20대의 경우 (1) 편리하니까 (2) 좋아 보이니까, (3) 자기가 급할 때 연락하기 쉬우니까 = (4) 안심이 되니까, (5) 타인이 찾기 쉽게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40대의 경우는 (1) 편리하니까, (2) 좋아 보이니까, (3) 자기가 급할 때 연락하기 쉬우니까, (4) 타인이 찾기 쉽게, (5) 안심이 되니까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큰 순위 차이는 “좋아 보이니까”였는데, 이동전화 소지자 자신은 “좋아 보이니까” 가지고 다닌다고 응답한 순위가 낮았으나 이동전화 비소지자가 볼 때에는 좋아 보이니까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세대차

세대별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향후 이용가능성

현재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이동전화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가 표 8에 나와 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이동전화를 구입하려고 한다(언젠가는 이동전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 의지로 이동전화를 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아마 나는 앞으로도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에 어느 쪽이 더 자신의 생각에 가까운지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40대는 그 비율이 거의 반반이면서 후자 쪽이 약간 더 많은 데 비해, 20대는 68%가 넘는 비율이 언젠가는 이동전화를 구입하겠다는 쪽을 택했다. 20대는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정적 이용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8.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이용 잠재성

연령대	사정이 허락 하면 언젠가 구입할 것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입 하지 않을 것	합계
20대	67 (68.4%)	31 (31.6%)	98 (100%)
40대	42 (49.4%)	43 (50.6%)	85 (100%)
합계	109 (59.6%)	74 (40.4%)	183 (100%)

주. $\chi^2 = 6.79, p < .009$.

표 9. 이동전화가 있었으면 하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연령대	있다	없다	합계
20대	78 (79.6%)	20 (20.4%)	98 (100%)
40대	60 (70.6%)	25 (29.4%)	85 (100%)
합계	138 (75.4%)	45 (24.6%)	183 (100%)

주. $\chi^2 = 1.99, n.s.$

이동전화가 있었으면 하고 느낀 적은 20대와 40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표 9 참조). 언제 있었으면 하고 느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급한 연락을 해야 할 때, 공중전화가 없을 때 등으로 답했고 인적이 없는데 차가 멈췄을 때, 상대방이 늦을 때, 이동전화 가진 사람끼리 약속을 바꿀 때, 나만 이동전화가 없을 때 등이었다.

그밖에,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이때, 20대의 경우는 (1) 필요하지 않아서, (2) 타인이 찾으면 번거로우니까 (3) 요금이 비싸서, (4) 주관이 뚜렷해서 (5)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40대의 경우는 (1) 필요하지 않아서, (2) 요금이 비싸서, (3) 타인이 찾으면 번거로우니까, (4)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5) 주관이 뚜렷해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 본 이동전화 이용 이유에서와는 달리,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보는 시각이 유사하였다.

이동전화 이용자들에게 바라는 사항

이동전화 비이용자들이 이동전화 이용자들에게 바라는 것으로는 20대와 40대 모두 “(1) 아무 데서나 벨소리를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2) 옆 사람이 들리지 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3) 이

동전화에 이것저것 붙이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의 순으로 1~3위 순위에 차이가 없었으나, 옆사람이 들리지 않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순위는 20대(1.86위)가 40대(2.12위)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t = -2.59, p < .02$.

흥미로운 것은 4위부터 6위까지의 희망사항에 세대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에게는 3위까지만 선정하게 하여 각 문항별로 평균 순위를 구한 결과에서, 20대는 (4) 자랑하듯 꺼내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5) 금새 신형 이동전화으로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 (6) 이동전화으로 사소한 잡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순으로 희망사항을 보인 반면, 40대는 금새 신형으로 바꾸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4위, 잡담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5위, 그리고 자랑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6위로 나타났다 특히 ‘사소한 잡담’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항목이 20대는 2.71위, 40대는 2.39위로서, 40대가 더 큰 불만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 = 2.49, p < .02$.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바라는 사항, 즉 지금까지 불만스러웠던 사항들이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내가 이동전화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가족’을 꼽은 순위는 20대(2.44위)보다 40대(1.44위)가 더 높았고, $t = 8.48, p < .001$; ‘동성친구’를 꼽은 순위는 40대(1.95위)보다 20대(1.68위)가 더 높았다 $t = -2.50, p < .02$. 마찬가지로, ‘가족’이 이동전화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순위는 20대(2.36위)보다 40대(1.27위)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t = 9.70, p < .001$; ‘동성친구’가 이동전화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순위는 40대(2.21위)보다 20대(1.72위)가 더 높았다, $t = -5.03, p < .001$. 주변 인물들 중에 40대는 가족이, 20대는 동성친구가 향후의 이동전화 구입에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탈물질주의적 성향과 변화수용성 차이에서의 세대차와 이동전화 이용

탈물질주의적 성향의 차이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탈물질주의적 성향의 차이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탈물질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Inglehart, 1997), 12가지 국가 장기목표 가운데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해당하는 여섯 가지(직장과 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 환경 개선 언론자유 보장, 정부 정책결정에 발언권 증대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중 몇 가지를 선택했는지가 탈물질주의 지표로 분석되었다.

표 10의 평균치에 대한 2×2 변량분석 결과, 연령대의 주효과가 크게 유의하였다, $F(1, 363) = 73.16, p < .001$. 즉, 20대가 40대보다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높았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 20대는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탈물질주의적 성향을 보였지만 40대만 놓고 보면 이동전화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더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높았다, $F(1, 363) = 4.05, p < .05$.

그밖에, 독백을 싫어하는 경향, 즉 직접연결을 선호하여 자동응답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어버리

표 10.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탈물질주의적 성향 차이

연령대	이동전화 이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3.17 (104)	3.27 (96)	3.22 (200)
40대	2.35 (83)	1.94 (84)	2.14 (167)
평균	2.81 (187)	2.65 (180)	2.73 (367)

주. 괄호 안은 사례수.

는 경향에서도 전체적으로, 20대($M = 3.54$)가 40대($M = 3.18$)보다 더 직접연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F(1, 367) = 6.58, p < .02$. 이동전화 비사용자는 20대와 40대가 직접연결 선호하는 정도 비슷하지만, 이동전화 사용자 중에는 20대($M = 3.69$)가 40대($M = 3.06$)보다 직접연결을 유의하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367) = 3.87, p < .05$.

변화수용성

“새로운 것은 재미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점수에서 “변화가 오는 것은 염려스럽다”라는 문항에 대한 5점척도 점수를 뺀 값을 변화수용성 정도로 보아 평균치를 구한 것이 표 11에 나와 있다.

표 11의 평균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탈물질주의적 성향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대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1, 366) = 47.25, p < .001$. 즉, 20대가 40대보다 변화에 더 수용적이었다. 그리고 이동전화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유의하게 더 변화에 수용적이었다, $F(1, 366) = 6.58, p < .02$.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탈물질주의적 성향과 변화수용성에서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가 보이는 차이는 이들이 인터넷 사용에 어느정도 익숙한지를 묻는 문항

표 11.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변화 수용성 차이

연령대	이동전화 사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1.36 (104)	0.91 (98)	1.14 (202)
40대	0.20 (84)	-0.19 (84)	0.01 (168)
평균	0.84 (188)	0.40 (182)	0.62 (370)

주. 괄호 안은 사례수.

표 12.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터넷 익숙함 정도

연령대	이동전화 사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3.99 (103)	3.65 (96)	3.82 (199)
40대	2.28 (82)	1.71 (84)	1.99 (166)
평균	3.23 (185)	2.74 (180)	2.99 (365)

주. 괄호 안은 사례수.

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연령대의 주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 20대가 40대보다 훨씬 더 인터넷에 익숙한 정도가 컸으며, $F(1, 361) = 292.02, p < .001$; 이동전화 이용 여부의 효과도 유의하여 이동전화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더 인터넷에 익숙하다고 응답하였다, $F(1, 361) = 18.26, p < .001$. 이동전화이든 인터넷이든 뉴미디어의 이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자기표현이 강조되는 탈물질주의적 성향과 변화수용성에 어느정도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규칙회피 성향

규칙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규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문항의 5점척도 점수에서 “규

표 13. 세대별 이동전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규칙 회피 성향

연령대	이동전화 사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0.31 (104)	-0.35 (98)	-0.33 (202)
40대	-1.08 (84)	-1.62 (85)	-1.36 (169)
평균	-0.65 (188)	-0.94 (183)	-0.80 (371)

주. 괄호 안은 사례수

척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문항의 5점척도 점수를 \searrow 값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 과 같이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연령대의 주효과가 크게 유의하여, 20대가 40대보다 더 규칙을 불편하게 여기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1, 367) = 38.27, p < .001$. 그리고 이동전화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규칙을 불편하게 여기는 정도가 조금 더 컸다, $F(1, 367) = 3.05, p < .09$.

이동전화의 도구적 및 표현적 사용 차이

탈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자기표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동전화도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표 14는 이동전화가 ‘나’를 표현한다는 문항, 즉 이동전화의 ‘표현적 가치(expressive value)’를 중요시하는 정도에 대한 5점척도 응답 평균치이고 표 15는 이동전화는 편리한 통신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문항, 즉 이동전화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중요시하는 정도에 대한 5점척도 응답 평균치이다.

표 14의 변량분석 결과 이동전화 이용 여부의 주효과가 크게 나왔으나 이것은 이동전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원천적으로 이동전화가 ‘나’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F(1, 367) = 15.49, p < .001$. 그리고 연

령대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이동전화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같은 정도로 20대가 40대보다 더 이동전화가 자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컸다, $F(1, 367) = 5.09, p < .02$.

참고로, 이동전화 이외에 자기를 잘 표현하는 소지품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 자기를 잘 표현하는 소지품

20대가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소지품으로 열거한 것들:

사진, 도장, 일기, 시계, 손수건, 수첩, 안경, 옷, 장신구(악세사리), 필통, 가방, 글씨, 지갑, 악보, 책, 머리스타일, 목걸이, 신용카드, CD, 명함, 향수, 거울, 학생증, 면허증, 태권도단증

40대가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소지품으로 열거한 것들:

수첩, 넥타이, 지갑, 카드, 통장거래, 자녀, 외모, 신발(구두), 옷, 머리, 말씨, 성격, 행동, 자동차, 펜, 집, 운전면허증, 신자카드, 가족, 스케줄표, 자격증, 노트북, 가족사진, 인격, 염주, 주머니속 물건, 화장품, 머리핀, 안경, 반지, 메모지, 미니성경책, 핸드백, 도장, 사진, 목주, 여권, 전화번호수첩, 의료보험증, 보석, 스카프, 열쇠고리, 줄자

20대만 열거한 것

필통, 글씨

40대만 열거한 것

넥타이, 자동차, 스케줄표, 구두

표 14. 이동전화는 ‘나’를 표현한다 (표현적 이용)

연령대	이동전화 이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2.27 (104)	1.84 (98)	2.06 (202)
40대	2.01 (84)	1.62 (85)	1.82 (169)
평균	2.15 (188)	1.74 (183)	1.95 (371)

주. 괄호 안은 사례수.

표 15. 이동전화는 편리한 통신수단일 뿐이다 (도구적 이용)

연령대	이동전화 이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3.62 (104)	3.63 (98)	3.62 (202)
40대	4.01 (84)	3.87 (85)	3.94 (169)
평균	3.79 (188)	3.74 (183)	3.77 (371)

주. 괄호 안은 사례수.

표 16. 독특성 선호도에서 유사성 선호도를 뺀 값 (독특성 선호 지표)

연령대	이동전화 이용자	이동전화 비이용자	평균
20대	0.47 (104)	0.77 (98)	0.61 (202)
40대	0.14 (84)	-0.80 (85)	-0.33 (169)
평균	0.32 (188)	0.04 (183)	0.18 (371)

주. 괄호 안은 사례수.

이동전화의 도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 15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연령대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367) = 9.65, p < .01$. 즉, 40대가 20대보다 더 이동전화는 편리한 통신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이동전화를 편리한 통신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당연히 높지만, 자기표현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독특성 선호와 유사성 선호

탈물질주의적 성향은 자기표현적 가치 선호도이므로,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독특성 선호도가 높고 유사성 선호도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야 가치가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5점척도 점수에서 “다른 사람

과 비슷한 것이 무난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5점척도 점수를 뺀 값을 표 16과 같이 구해 보았다.

변량분석 결과, 이동전화 이용여부의 주효과 연령대의 주효과,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더 독특성을 선호하고, $F(1, 367) = 4.05, p < .05$; 20대가 40대보다 더 독특성을 선호하며, $F(1, 367) = 34.49, p < .001$; 독특성 선호의 세대 간 차이는 이동전화 이용자의 경우보다 비이용자의 경우에 더 컸다, $F(1, 367) = 14.72, p < .001$.

친밀도에 따른 통신수단 선호

친밀도에 따라 통신수단을 선호하는 정도는 연령대와 이동전화 이용여부에 따라 표 17(친한 사람과의 통신수단) 및 표 18(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통신수단)과 같이 달리 나타났다.

표 17. 친한 사람과의 통신수단 선호 순위 평균

이동전화 이용자		통신수단	이동전화 비이용자	
20대	40대		20대	40대
3.12 ③	4.13 ④	전자우편	2.71 ③	4.42 ⑤
2.36 ②	2.56 ③	직접 만남	2.38 ①	2.25 ②
1.35 ①	1.86 ①	이동전화	2.96 ④	2.89 ③
3.21 ④	1.94 ②	유선전화	2.45 ②	1.35 ①
4.77 ⑤	4.51 ⑤	편지	4.51 ⑤	4.09 ④

표 18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통신수단 선호 순위 평균

이동전화 이용자		통신수단	이동전화 비이용자	
20대	40대		20대	40대
1.89 ②	3.44 ③	전자우편	1.86 ①	4.07 ⑤
3.74 ④	3.66 ④	직접 만남	3.73 ④	3.27 ③
1.72 ①	2.07 ②	이동전화	2.84 ③	2.64 ②
2.89 ③	1.85 ①	유선전화	2.37 ②	1.32 ①
4.58 ⑤	3.99 ⑤	편지	4.20 ⑤	3.68 ④

표 17의 순위 평균치에 대한 변량분석(이동전화 이용여부와 연령대는 개체간 효과로, 평균순위 변인은 개체내 효과로 분석함)에서, 친한 사람과의 통신수단 선호 순위는 이동전화 이용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달라졌고, $F(4, 1376) = 43.75, p < .001$;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달라졌다, $F(1, 1376) = 63.93, p < .001$.

구체적으로, 친한 사람과의 통신수단으로 이동전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경우 20대와 40대가 마찬가지로 20대는 다른 통신수단에 비해 이동전화 의존도가 많이 높지만 40대는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를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와 40대 모두 편지 선호도가 확연히 떨어졌다.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경우, 20대는 직접 만나는 것과 유선전화를 비슷한 정도로 선호했으나, 40대는 유선전화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정도가 컸다. 편지 선호도는 이동전화 비이용자 중에서도 20대와 40대가 모두 낮았고, 전자우편 선호도에서 20대와 40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40대는 거의 편지와 같은 수준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않는 데 비해 20대는 전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선호하였다.

표 18의 변량분석 결과(이동전화 이용여부와 연령대는 개체간 효과로, 평균순위 변인은 개체

내 효과로 분석함), 연령대에 따른 효과가 이동전화 이용 여부에 따른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통신수단 선호 순위는 연령대에 따라 크게 달랐고, $F(1, 1376) = 78.54, p < .001$, 이동전화 이용여부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달랐다, $F(1, 1376) = 19.45, p < .001$.

구체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20대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을 이동전화와 거의 유사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0대는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도 친하지 않은 사람과 연락할 때에는 유선전화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그 다음으로 이동전화를 선호한다. 20대와 40대 모두 편지 선호도는 가장 떨어져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편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20대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통신에 전자우편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유선전화를 선호하였으며, 편지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40대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통신할 때 유선전화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전자우편 선호도가 가장 떨어졌다.

그밖에, 뒷사람에게 연락할 때 상대방이 가장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같은 통신수단의 순위는 전체적으로(N = 348)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자우편(1.75위) > 이동전화(1.95위) > 유선전화(2.84위) > 편지(3.77위) > 직접 만남(4.67위). 전달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수단일수록 상대방에게는 더 예의에 어긋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쓰는 것은 전달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예의를 더 갖추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윗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아랫사람의 입장에서 윗사람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부분만을 다루었다.

이것은 현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뉴미디어들이 주로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 주는 수평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상하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 주는 수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까지 확산되는 데에는 어느정도의 저항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의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볼 만한 주제이다.

시사점 및 결론

본 조사연구의 결과에서 일관성있게 드러나는 현상은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더 자기표현적이며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런 차이가 이동전화 이용 양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기성세대는 이동전화를 단지 편리한 통신수단의 하나로 생각할 뿐이며, 거의 음성통화에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신세대는 이동전화가 편리한 통신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다 잘 표현해 주는 소지품으로 생각하

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아바타를 붙이기도 하고, 자기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장신구를 부착하기도 하고(나은영, 2001b 참조), 자기만의 부호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기성세대보다 더 빨리 대치한다.

신세대는 휴대전화를 유선전화에 비해 월등히 선호하며, 특히 윗사람과의 통신이 아닌 동료나 친구들과의 통신에 휴대전화를 많이, 그리고 길게 사용한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선전화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며, 가족과의 통화가 길고 빈번하다.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모두 이동전화는 친한 사람들과 더 많이 사용하며, 신세대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통신할 때 e-mail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유선전화를 많이 사용한다. 이동전화 사용 영역들 중에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였다. 20대는 이동전화를 이용할 때 음성통화보다도 오히려 문자메시지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을 보였다.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는 이미 신세대에게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 전달방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규칙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변화에 수용적인 신세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 남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하며, 이런 생각이 이동전화 이용이라는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동전화 비이용자 중에서도 기회가 되면 이동전화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세대가 더 높았다. 이동전화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은 친구세대 모두 많아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구입하게 될 가능성은 단연 신세대가 더 높았다. 이동전화 비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바꾸거나 과시하려 들 때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여 주었다.

이동전화 이용자들, 그 중에서도 신세대는 특히 변화수용성, 독특성 추구 성향 및 탈물질주의 성향이 강하고 규칙을 불편해 하며,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에도 훨씬 더 익숙하다.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 방향이 신세대의 태도와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뉴미디어 이용 초기에는 신·구세대 간에 이용양식의 차이를 크게 보이다가, 미디어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면서 그 차이가 감소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표본에서 얻어진 결과를 한국의 전체 인구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세대 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 데에는 충분히 유용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인터넷이나 이동전화와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윗사람을 향한 통신에는 부적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윗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노력과 정성(편지를 쓴다든지 직접 찾아뵙는 다든지 등)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즉, 뉴미디어는 상향 커뮤니케이션에 적절하지 않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나 현재 전자우편이나 이동전화와 같은 뉴미디어의 이용 경향이 수직(특히 상향)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수평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염려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향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 하는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편리한 뉴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신세대가 더욱 상향커뮤니케이션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를 이용해 배타적 또래집단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만 과도하게 몰입함으로써 수직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에 무관심해질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은 급격히 팽창되고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한번쯤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동전화나 e-mail 과 같은 뉴미디어에 윗사람이 먼저 개방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상향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막지 않는 지름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현주 (2000). 전화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2), 65-92.
- 나은영 (2001a).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개인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4), 189-228.
- 나은영 (2001b). 여성의 뉴미디어 이용과 가치관.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51-472.
- 노규형 (1987). 개인매체에 의한 정보유통량과 정보내용의 추이분석과 전망. *정보사회연구*, 2, 45-60.
- 배진한 (2001). 이동전화의 충족과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이동전화의 적합성 인식: 세대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4), 160-188.
- 윤재희 (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 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은혜정·나은영 (2001). 인터넷 수용자의 능동적 이용양식.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이동전화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3), 261-293.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청소년의 이동전화 활용실태 및 사회학적 의미 고찰. *청소년보호*

- [On-line], 2001-21, Available: <http://www.youth.go.kr/e-lib>
- Bulck, J. V., & Bergh, B. V. (2000).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guidance patterns on children's media use: Gender differences and media displac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3), 329-348.
- Claisse, G., & Rowe, F. (1987). The telephone in question: Question on communication. *Computer network and ISDN system*, 14, 207-219.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tz, J. E., & Aspden, P. (1998). Theories, data and potential impacts of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57, 133-156.
- Keller, S. (1977). The telephone in new and old communities. In Ithiel de Sola Pool (Ed.), *The social impact of the telephone* (pp.281-298). Cambridge, MA: MIT Press.
- Leung, L., & Wei, R. (1998). The gratifications of pager use: Sciability, information-seeking, entertainment, utility, and fashion and status. *Telematics and Informatics*, 15, 253-264.
- Leung, L., & Wei, R. (2000). More than just talk on the move: Uses and gratifications of the cellular phon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08-320.
- Na, E. -Y., & Duckitt, J. (2002). Value consensus and diversity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in press.
- Noble, G. (1987). Discriminating between the intrinsic and instrumental domestic telephone user. *Australia Journal of Communication*, 11, 63-85.
- Papacharissi, Z., & Rubin, A. M. (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2), 175-196.
- Rogers, E. (1986).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w media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Singer, B. (1981). *Social function of the telephone*. Palo Alto, CA: R & E Research Associates.
- Suler, J. (1999). The interpersonal dynamics of chat communication.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On-line], Available: <http://truecenterpoint.com/ce/texttalk.html>

A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in Post-materialistic Values and Usage of Mobile Phones

Eun-Yeong Na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Inter-generational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mobile phone users and non-users in their differential behaviors and attitudes concerning mobile phone usage. A special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usage of mobile phones and post-materialistic values among the younger and the older age groups in Korea. As a result of a survey on 371 participants (20s and 40s in their age),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tended to use their mobile phones more expressively with their same-sex friends by way of text messages as well as voice messages. In contrast, the older generation mostly used their mobile phones in an instrumental way with their family and same-sex friends primarily based on voice messages. Openness to change and unwillingness to follow conventional rules among the youngers were also in parallel with their higher post-materialism and expressive usage of mobile phones.

keywords : *post-materialism, value, generation gap, mobile phone, expressive use, instrumental use*